

# 광주·전남 치킨프랜차이즈 2천개 육박

### 2018-2022년 각 16%·24% ↑ ...전국 3만개 가까이 생겨 전체의 64%가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수익성은 악화일로

광주·전남에서 영업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체 수가 2천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전문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서면서 관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영업이익 등 수익성도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광주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2022년 기준 788개로 관련 통계가 공식되기 시작한 2018년(685개)보다 16.49%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8년 1천230억4천900만원, 2019년 1천593억6천900만원을 달성,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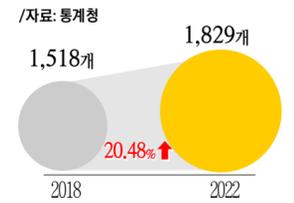
년에는 2천121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1천108억8천400만원에서 1천352억7천500만원, 1천929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비용은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매출이익은 지난 2018년 121억6천500만원에서 2019년 240억9천4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92억1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8년 833개, 2019년 809개로 줄어 들었다가 2022년 1천31개로 23.76% 증가했다.

### 광주·전남 치킨 프랜차이즈 수



자료: 통계청

매출액은 2018년 1천208억8천900만원, 2019년 1천242억8천400만원을 기록, 2022년에는 2천320억1천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1천115억1천100만원에서 1천179억800만원, 2천529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이익은 지난 2018년 88억7천800만원, 2019년 225억7천600만원, 2022년 267억2천200만원으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도 2018년 2만5천110개에서 2022년 2만9천348개로 늘어 증가율은 16.9%다.

국내 전체 치킨전문점(프랜차이즈 + 비프랜차이즈) 수가 ▲2020년 4만2천743개 ▲2021년 4만2천624개 ▲2022년 4만1천436개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0.8%로 처음 70%를 돌파했다.

이렇듯 전국 치킨프랜차이즈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상황 속에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치킨전문점의 영업이익은 2020년 6천238억6천만원에서 2022년 8천603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치킨 가맹점이 6.5%로 주점(6.2%), 한식(17.2%), 피자(11.6%), 제과제빵(8.1%), 커피(7.4%)보다 낮았다.

특히 전체 치킨 가맹점의 64%가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연 매출 2억~3억원은 23.3%, 3억원 이상은 12.7%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매출 감소에도 프랜차이즈 증가 현상은 배달앱 시장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선영 광주경제자유지역개발팀장은 "배달의 민족 등 대형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 쿠폰지급, 할인행사 등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 지역 요식업 사업자 중 배달을 사용하는 비율도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의 52.9%로 지역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공 플랫폼이 꼭 필요한 시점에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 독립 선언이 전남, 울산, 대구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며 "공정한 배달플랫폼 환경조성과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투자 감소 건설업 활성화 모색”

### 광주상의, 양대 노총 지도자 등 참석 노사상생발전 간담회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침체된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임원, 양대노총 지도자, 광주시간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발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상생발전 간담회는 지난 3월 광주상공회의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상원 회장의 4대 공약 중 일부인 노사 산업평화선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양대노총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4차 간담회는 지난해 들어 건설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고금리,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역시 1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광주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경기동향 보고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 보고 ▲특광역시 노사분규 현황 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 보고 ▲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활용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최근 5년간 7대 특광역시 노사분규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연평균 5.4건으로 인건 48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노사분규 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강성노조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대기업 유치가 어렵고 우수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은 좋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양대노총 의견을 수렴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노조에서도 상호협력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재만 기자



유가 6주 연속 하락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1~5일) 전국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ㄹ당 14.0원 하락한 1천658.5원을 기록했다.



## 광주국세청,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청소년 봉사 초청 장학금 수여...복지관 위문품 전달도

광주지방국세청이 따뜻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8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박광종 청장이 지난 6일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청사에 초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 청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또 장성군 진원면에 위치한 차매, 중종 노인 돌봄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각 국 실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아 국 과장 주관 하에 복지시설 등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비파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경총-광주불교방송, 문화콘텐츠 육성 업무협약

### 중소 지원 정책 안내·우수기업 홍보 등 협력...금요초찬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홀리데이 인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불교방송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6회 금요초

찬포럼을 성황리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불교방송은 1986년 개국해 광주·전남(목포, 광양, 여수, 순천)에 불교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진 포럼 강연은 새터민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차소연(류경 대표)씨가 '사선(死線)에서 사선으로'라는 주제로 북한에서 탈북하게 된 경위부터 중국에서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과정과 한국에서의 도전을 위한 삶,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임재만 기자

##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mailto:yunanbio@naver.com)

###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전국 시도 총판 모집

##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광주 010-3738-8989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지사 062) 525-7585